

VISION STORY

좋은 가치관을 전하는 우리 지역 매거진 **도림교회**가 함께 합니다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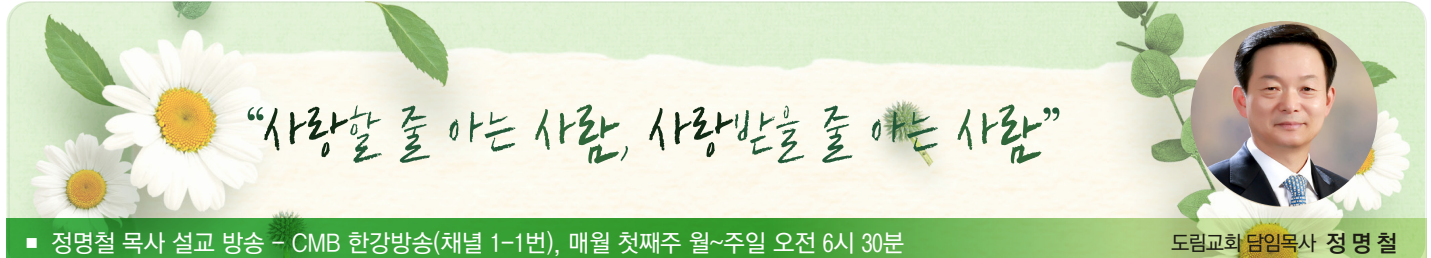
트로트 가수 이도진

미스터 트롯,
행복한 노래를
불러요!

05
2020

경제 공부 가이드

1. 가정 경제 운영 하기
2. 금융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 정명철 목사 설교 방송 - CMB 한강방송(채널 1-1번), 매월 첫째주 월~주일 오전 6시 30분

도림교회 담임목사 정명철

오랫동안 교회학교를 가르치다보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에 이상하게 미운 짓만 골라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늘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 이 어린이들이 미운 짓만 골라하느냐?”하면 가정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쁜 짓을 할 기회를 부모들이 만들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 받는 어린이들은 평소에도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이것을 보며 ‘나도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을 벌이지만 그 일이 하나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이들을 보면 ‘저 아이가 지금 사랑받고 싶어 고통 받는 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사랑받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미움 받을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될 일들은 꼭 나서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달라서 싸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 받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학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받는 아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위해 화장을 하고 남편을 위해 옷을 삽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남편을 위해 만듭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집에서는 머리도 안 감고 파자마 바람으로 다니다가 밖에만 나가게 되면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아니 남편 위하여 때 화장을 열심히 해야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화장을 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남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자가 행복해 질수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합니다.

여자만 이야기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남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밖에서는 아주 호인이라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허허”하고 잘 참습니다. 돈도 잘 씁니다. 식사를 하면 “내가 내지”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딱 누워서 입만 가지고 부인을 다 시킵니다. 자녀들을 심부름시킵니다. 자녀들이 옷 사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가족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있는 모습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집에 갔더니 자기 아들도 똑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이번엔 그 모양이 그렇게 밍상 맞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은 풀길이 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죄 없는 강아지 옆구리를 차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하루에 한번 이상 미소를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받을 줄 압니다. 또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압니다.

- 정명철 목사 설교 중에서

영등포구, 연내 장애인 복지시설 3곳 문 연다

영등포구가 무장애도시 영등포를 향한 2020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총 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4월에 개소한 ‘농아인쉼터’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약 302㎡ 공간에 새롭게 마련했다. 지역 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2,348명으로 지역 전체 장애인의 16%에 해당된다. 농아인쉼터는 이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상담·정보·문화 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5월 개소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당산동1가 14-3) 다. 745.3㎡ 규모의 단독 건물을 임차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스포츠실·프로그램실·심리안정실 등을 갖추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성인이 된 후 배움의 기회가 드문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여가·문화·스포츠 등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구는 이로써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별 걸친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같은 건물 4층에 10월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장애가족 대상 교육 △위기가족 상담 △사례관리 △장애인 돌봄 △자녀 긴급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한 건물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시설 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로써 장애인 및 가족의 다양한 욕구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가 한층 높은 시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삼시세끼가 건강을 지킨다

올해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유독 집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많아진다. 집콕하면서 본이 아니게 삼시끼가 되기도 한다. 무급휴가, 재택근무, 육아돌봄 등이 늘어난 요즘, 끼니를 거르거나 배달음식만 시켜 먹기에 나와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들을 위해 삼시세끼 영양 가이드를 소개한다. 글 편집팀

삼시세끼 영양 행기기

아침 식사

아침은 단백질 섭취에 포커스를 맞춘다. 물론 단백질은 매 끼니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이지만 아침을 간단히 먹는 현대인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아침에 먹기 편한 그릭요거트, 달걀, 치즈, 우유 등을 곁들이길 권한다. 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식사를 고단백으로 채운 사람들의 체질량지수가 점심이나 저녁때 식사를 한 사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도 더 낮게 유지했다고 한다.

점심 식사

점심은 단백질, 잡곡, 채소 등 균형 잡힌 식단이 좋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낮 시간을 위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샐러드로 부족해지기 쉬운 과일과 채소를 보충하자. 당근 등의 뿌리채소,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 오이 등 열매채소, 고추 등 가지과 채소, 콩 등 식물성 영양소를 섭취하는 걸 권한다.

간식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 타임을 주면 좋다. 늦은 오후 피곤함을 이겨낼 영양소 보장이 필요하다. 좋은 간식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 추천 건강 간식은 견과류다. 불포화 지방으로 심장질환 예방, 체중 증가 억제에 좋다. 또한 식유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줘 저녁 식사에 과식을 하지 않게 도와준다.

저녁 식사

이 시간에는 칼로리는 낮고 균형 있는 영양소 식단, 단백질과 채소를 주로 먹자. 특히 저녁 시간에는 활동량이 현저히 적으므로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철칙이다. 그러므로 칼로리를 낮추되 건강한 영양소로 식단을 구성해보자. 메인 음식 전 샐러드나 스프 등으로 과식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콩, 닭 등으로 단백질과 샐러드로 채소 영양소를 섭취하자.

야식 대신 디저트!

늦은 밤, 배가 출출하다. 이럴 때 라면, 치킨, 과자류나 빵류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그런 고칼로리의 유혹을 떨쳐버리자. 대신 달콤함을 느끼게 하면서 열량이 적고 건강한 저지방 요거트를 선택해보자. 다크초콜릿도 좋은 선택이다. 많이 출출하다면 바나나를 먹어보자. 바나나는 그 자체로 허기를 가시게 해주기도 하지만 영양에서도 밤 간식으로 으뜸이다.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이면서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 허기, 영양소, 수면을 잡기에 일석삼조다. ㉮

아이들과 브런치 어떠세요?

브런치의 시작

'브렉퍼스트'와 '런치'의 합성어인 브런치의 역사는 19세기로 올라간다. 영국 귀족이 이른 아침 스포츠로 사냥을 끝낸 후 푸짐하게 차린 음식으로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즐겼던 데에서 비롯됐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브런치의 대중화는 미국이었다. 물론 미국에서도 상류층에서부터 브런치가 시작됐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레스토랑이나 카페에는 반드시 신사의 에스코트가 있어야 숙녀가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런 당시 브런치는 남성 동반자 없이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사교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레스토랑에서는 상류층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급 브런치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유행했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되어 대중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브런치 맛집

일산 37.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에 있으며 미국 정통 브런치를 선보이고 있다. 양도 푸짐하기 때문에 가족 식사에 제격이다.

속초 완앤송 부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브런치 카페로 100% 오픈 주방으로 되어 있다. 평일 브런치 코스가 시그니처 메뉴인데 가성비가 좋다는 평이 많다. 속초 여행을 간다면 한번 들려보자.

양평 홍소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넓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마실하기에 좋다. 에그베네딕트와 셔퍼드파이(고기소스로 만든 음식)이 인기다.

천안 온더플라워 꽃이 가득한 브런치 카페로 유명하다.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트러플치즈파니니 세트가 시그니처 메뉴다.

삼척 마마티라 그리스 산토리니풍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삼척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먹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런치 카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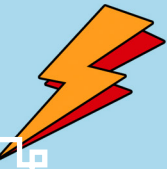
행복한 노래를 부릅니다! 미스터트롯,

가수 이도진

국민 프로그램이 된 '미스터트롯', 시청률 30%를 넘어서며 종편 예능을 평정함은 물론 공중파 최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무한도전급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 비록 결승전에 올라가지는 못했으나 재치 있는 입담, 허스키하고 구수한 노래, 특히 김준수 닮은꼴로 주목을 받으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가수가 있다. 이도진이다.

그는 사실 1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해온 경력자다. SBS '신의 목소리', KBS '내생애 마지막 오디션', 엠넷 '슈퍼스타 K' 등에도 출연하며 종종 시청자들에게 이도진만의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신의 목소리'에서는 3일 동안 실검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를 만나 트로트 음악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뀐 '미스터트롯' 이야기를 들었다. 글 편집팀





트로트 가수로서 매력도 커요. 아이돌 데뷔 당시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가이드라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트로트 가수가 된 후에는 어떤 제약 없이 관객들과 격식 없이 만나고 무대에서 친밀하게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아요.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으시죠?

‘미스터트롯’ 프로그램 덕분에 예능, 행사, CF 섭외가 많아 들어왔어요. 결승전에 가기 전에 탈락해 시간이 많아 섭외에 응하느라 방송 때보다 더 바쁘게 스케줄을 보내고 있어요. 끼가 많고 밝은 에너지가 광고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표적 예능으로는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출연했고요. 프로그램 방영 후 식당에 갔는데 주인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인기를 실감해요. 프로그램이 잘 돼서 참 감사해요. 이 정도로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음악 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가수가 꿈이셨어요?

가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투병 중에 돌아가셨고 그런 일을 겪으며, 나 자신의 꿈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 이후에 더 신앙적으로 다가가게 됐어요.

그런데 데뷔는 아이돌 그룹으로 했어요. 미니홈피가 인기였던 시절이었는데 한 기획사에서 제가 데뷔를 제의해온 거예요. 얼떨결에 기획사에 들어가 ‘레드애플’ 그룹으로 데뷔했어요.

1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댄스가 많았는데 노래 부를 기회가 적어 저장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트로트 가수가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아이돌 그룹에서 나와 솔로 발라드 가수로 활동하고 있을 무렵, 주변 분들에게서 트로트를 해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저를 보면 트로트의 흥과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말을 종종 들었죠. 고심하던 중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결심하고 준비해서 트로트 앨범, ‘한방이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트로트 가수 데뷔 해에 ‘미스터트롯’ 프로그램 오디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참가했어요.

트로트는 매력이 큰 것 같아요.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한 풀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사람을 울고 웃게 하는 것 같아요.

‘미스터트롯’ 방송 뒤 이야기가 궁금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종편 예능을 넘어서 공중파 최고 인기 예능 ‘1박2일’ 다음으로 시청률이 높았어요. 떨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모두들 하시겠지만, 가수 김준수 님은꼴로 조명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도 김준수 선배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했는데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만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마 그분도 놀라고 시청자분들도 저도 다 놀랐어요. 그로 인해 제 끼를 아낌없이 보여드렸고 올 하트를 받게 된 거죠.

아쉽게도 30위 결정전, 본선 2라운드 ‘1대 1 데스매치’에서 강태관 참가자와 맞붙어 탈락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한 값진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경쟁보다는 함께 즐기는 축제 같았기 때문에 승패에 낙심은 없었어요. 덕분에 ‘찐블리’라는 제 팬클럽도 생겼는걸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자랑이 됐어요. 누나들과 조카들이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조카들이 만화 속 캐릭터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로트 프로그램이 인기인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이 기존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외돼 있었어요. 트로트란 장르도 아이돌 그룹이 주인 국내 가요 풍토에 비주류였었고요. 그런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이 일종에 판을 깔아준 거예요.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를 제공해 준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세미트로트를 하고 있지만, 정통 트로트를 하고 싶어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고 싶어요. 제가 예능에 대한 끼가 많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 역시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에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노래로 삶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CCM 음악 작업도 해나가고 싶고요. 

가정 경제 운영하기

글 박상훈 지속가능한 가정경제 연구소장



금융위기가 있던 2007년 즈음, 노후자금 마련 열풍이 불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해약자들이 늘어났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리한 주택 구매로 대출 원금 갚기 위해 혹은 고학년 자녀의 학원비가 부담됐을 수도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으로 전환되며 수입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약자의 몫으로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불입하다가 갇다면 쌓인 이자는 날아가고, 본전만 겨우 찾았을 테고, 3년 되었다면 해약할 때 미상각 신계약비까지 30% 이상 손해를 봤을 것이다. 어찌 보면, 무리하게 연금 가입을 중용했던 어떤 보험설계사의 책임이기도 하다. 고객과 가정이 겪을 불확실성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수입과 지출, 월간 수지분석의 한계

사람의 생사화복을 알 길은 없다. 하지만 보편적인 위험 요인들은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보험 리모델링이나 상품 판매 중심의 재무 설계 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현재 남은 잉여자금을 갖고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에 치중돼 있다.

아쉬운 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대출 전략은 가르쳐주지만, 언제 집이 필요한지, 1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할 때 어떤 재무 위험이 생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현재 월수입과 지출을 넘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중장기 현금 흐름 분석이 필요하다. 현금 흐름은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

미래 수지분석으로 가정경제를 설계하자

재무설계 업계에서 중장기적인 현금 흐름 분석을 꺼리는 이유는 ‘상품 가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해당 연도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다. 연간 총수입에서 연간 총지출을 빼면 연간 수지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이 수치는 미래 예상(기대) 소득과 생활비, 자녀교육비,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액 등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다.

흔히 익숙한 월간 수지분석은 현재 남은 돈(잉여자금)으로 목적자금을 설계하는 방식이라면 중장기 현금 흐름 분석은 경제적인 소득 외에도 개인과 가정의 내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삶을 계획(hope)하고 다양한 삶의 위험 요소를 대비(plan)하는 생애설계방식이다.

각설하고 ‘누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지출을 관리하고 기회비용을 잃지 않도록 재무 목표를 잘 잡고 합리적인 투자로 인생의 다양한 목표를 준비한다면 분명 희망이 있다. 보험 하나 가입한다고 가정경제 해결되지 않으며, 연금 하나 가입한다고 노후가 해결되지 않는다. 불확실성의 시대, 결국 현금 흐름이 답이다. ①

가정 경제를 살리는 분산 투자 강의

가계 경제를 위해 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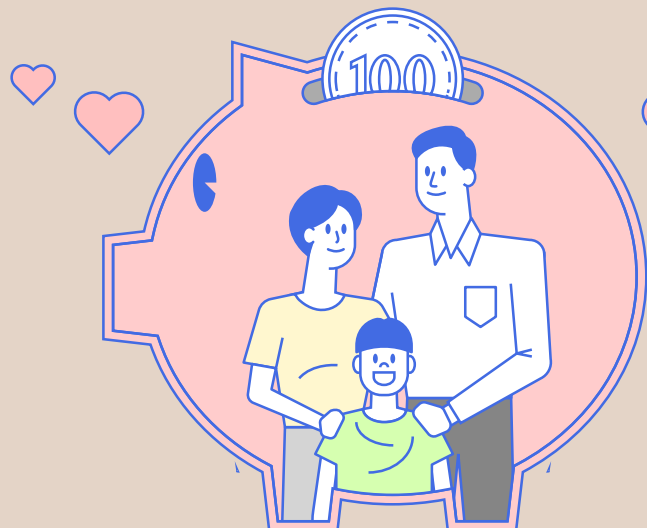
하지만 분산 투자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분산 투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종목분산투자 주식형 자산, 채권형 자산인데 유동성 자산에 비율을 나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분산 투자의 황금 비율로 공격적 투자의 경우 60:30:10을, 안정적 투자일 때는 20:70:10의 비율을 추천했다.

주식형 자산은 주식, 주식형 펀드 및 관련 파생 상품 등 주식형 금융 상품이고 채권형 자산은 예적금, 채권, 채권형 펀드, 저축성보험 등 금리 연동형 금융상품이고 유동성 자산은 CMA, MMF, 보통예금 등 원금 및 이자손실 없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주식 초보자에게는 채권형 자산에 비중을 높일 것이 좋다.

2) 시간 분산 투자 주식은 시간에 따라 가치의 등락이 있는데 시간을 나눠 일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8% 자동분산투자 자동분산투자는 투자자의 예치금 내에서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다. 투자자의 투자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해줘 편리하고 안정적이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상환 원리금은 재투자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금융 생활 파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자신의 금융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글 편집팀



카드 혜택을 누리자

카드 선택 시 사람들이 고려하는 1순위는 카드 부가 혜택이다. 그런데 내가 쓰는 카드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뱅크샐러드의 '카드 생활 성적표'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한 달에 한 번 카드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자신의 실제 소비내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레벨을 단계별로 나눠 알려준다.

펀드 팔까? 말까? 펀드 진단 서비스

펀드를 사놓긴 했는데 오르진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마이너스의 끝은 어디일까. 과연 오르긴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펀드슈퍼마켓의 '펀드진단 서비스'를 써보자. 자신의 고민과 보유하고 있는 펀드 종류를 기재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1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준다.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펀드의 성과, 자금 유/출입 추이 등을 기준으로 '펀드 종합점수'를 산출해 펀드를 유지할지, 환매할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투자 성향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펀드를 제안해주기도 한다.

재무 진단을 받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참 쉬운 재무진단'

한 달 월급에서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할지, 투자액은 적당한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모아야 할지에 관해 조언해준다. 객관식 설문으로 간략하게 진단하는 '간편 진단'과 실제 자산 정보를 입력해 더 자세한 진단을 받는 '정밀 진단'이 있다. 이후 종합 재무진단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저축, 비상자금 마련 등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신용등급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무료신용조회를 활용해보자. '나이스지키미', '울크레딧' 두 가지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신용조회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차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금융 초보자, 금알못을 위한 정보 사이트

한국은행 경제교육

한국은행 사이트 내에 경제교육 카테고리에서 연령별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화폐나 외환, 통계 지표 등의 분야부터 경제이론 등 교양 분야도 공부할 수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좌도 개설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은 금요일강좌'를 연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강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상을 편집해 올리고 있다. / 문의.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02-759-4269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내 수준에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 공부해보자. 교육 시작 전 테스트를 통해 나의 수준을 파악한 후 수준별로 나눠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www.fss.or.kr/edu

기획재정부 경제배움 e

전문적이라서 어려운 금융 지식을 웹툰이나 카드 뉴스 등의 형태로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그우먼 송은이, 래퍼 딘딘 등이 참여해 경제의 기본 개념 설명 강좌를 쉽게 전달해준다. 영상이 길지 않아 출퇴근 시 듣기에 좋다. www.econedu.go.kr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 홈스쿨링 & 대안학교는 어떨까?

한국의 교육은 입시에 맞춰 있다. 얼마 전 유행했던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도 우리 시대 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업을 가지면 삶은 행복할까? 사회 초년생들은 직장에서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방향한다. 이 모든 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부터 맞춰진 교육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한국 학교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만 교육 제도가 맞춰져 있다. 아이들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실에서만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조금 벗어난 새로운 교육에 많은 부모가 눈을 돌리고 있다.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통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의 또 다른 길, 홈스쿨링과 대안학교를 알아본다. 글 정리 편집팀

홈스쿨, 이것은 알고 하자

홈스쿨링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점이다. 학교와 달리 소수의 인원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홈스쿨링을 통해 공부한 학생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래 집단을 통해 배우는 게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사회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모와 아이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홈스쿨링은 도중에 포기할 확률이 높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대화를 자주 해서 용기를 주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학습, 진로, 인성 등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부모

가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커리큘럼을 짜보자.

셋째, 아이의 교육 환경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커리큘럼을 넘어서 아이가 학교 같이 거주하는 방을 학습과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배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간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우리 아이, 대안학교는 어떨까?

대안학교는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선택하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해 가는 교육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선택한다. 한국의 대안학교는 여전히 대학 입시에 묶여 고등학교로 갈수록 일반 학교 커리큘럼을 닮는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대안이 될 가치 교육과 체험 학습이 많이 이뤄진다. 대안 학교 몇 곳을 소개한다.

구름산 발도르프 학교(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5)

인간이 가진 본연의 힘을 발현해내고자, 감각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 몸 공부, 마음공부, 머리 공부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지향하며, 인생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사회에 건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전인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기존 공

교육 체제의 교육과정을 참고하되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수업을 예술적으로 조직해내어 그 과정에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문의 : 031-472-9113

고양 자유학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초등 대안학교다. 50여 명의 아이와 교사가 배울 거리를 몸과 마음으로 익히고 있다. 교육목표는 의지, 감성, 사고가 조화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고, 겸손한 삶을 지향하며, 소통하는 사람을 길러 내려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즐거운 아이들의 배움터'라고 즐겨 부른다. / 문의 : 031-977-1448

다리꿈대안학교(안산시 상록구 이동 710-12)

이 학교는 ADHD 즉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개별화'다. 종합심리검사와 기초학력검사를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여 개별적인 치료와 학습 계획을 세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시간 중재 시스템'이다. 학생 간 갈등이 있을 때 교사가 즉시 개입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ADHD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리꿈대안학교와 같은 특수 대안학교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031-416-7179





드라이브 스루 이야기

글 편집팀 (Drive-Thru)

드라이브 스루의 시작, 미국 자이언트 햄버거 가게 이야기

드라이브 스루가 처음 생긴 건 1930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의 그랜드 내셔널 은행이었다고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창문을 방범창으로 막고 자동차 안에서 돈을 건네며 입금만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다고.

이러한 시스템이 차츰 퍼지기 시작하다가 자이언트 햄버거라는 가게가 요식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대중화시킨 모델이 됐다.

Route 66 대륙 횡단 고속도로가 생겨나며 그 길로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미국 전역에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나게 된 것이다.

초기에 미국의 드라이브 스루의 구성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차를 타고 온 고객이 입구의 마이크에 대고 주문하면 직원이 메뉴 주문을 주방에 넘기고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창가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주문 동선이 큰 것은 주문과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스루에 익숙해지면서 드라이브 스루 레스토랑, 영화관 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공원 부지 확보로 자이언트 햄버거집은 철거됐으나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집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레드 자이언트 햄버거 간판을 재건했다. 지금도 루트 66의 상징과 같은 곳이 되고 있다.

루트 66 이야기

이 길은 미국 동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작해 미주리, 텍사스, 애리조나, LA까지 이어지는 3,945km 대장정의 대륙횡단 도로이다. 이 길은 1926년 미국인이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며 이용했다. 새로운 개척지인 서부로 가서 할리우드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거나 새로운 삶을 꿈꿨다. 인기 애니메이션 디즈니 영화 '카(CAR)'의 배경이기도 하다.

드라이브 스루 문화

국내 드라이브 스루는 언제 생겨났을까? 92년 부산 해운대점 맥도널드가 한국 드라이브 스루의 시작이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컸는데 점점 자동차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드라이브 스루 문화를 가장 대중화시킨 건 맥도널드와 스타벅스다. 전 세계 맥도널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1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스타벅스 역시 드라이브 스루로 테이크아웃 마케팅을 성공시킨 기업이다. 드라이브 스루가 발달한 나라는 대개 자동차로 쇼핑을 해야 하는 서구에서 대중화됐다. 그래서 미국, 유럽인들은 지금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일상처럼 이용한다.

드라이브 스루가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드라이브-인 진입 시 접촉 사고가 종종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처럼 드라이브 스

루 존이 넓지 않아 사각지대, 방지턱 추돌, 보행자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색 드라이브 스루

일본에는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이 있다. 몸이 불편해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장례식장을 찾지 못하는 고령의 사람들을 보고 도입하게 된 방식이라고 한다. 방문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태블릿에 이름을 적고 전열식 향을 직원에게 건넨다. 상주들은 방문자가 오면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본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에도 비슷한 장례식장이 운영된다고 한다.

미국 조지아주에는 드라이브 스루 예방접종장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대면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많아지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선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소를 운영해 80%에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일본에 위치한 오가키코리츠은행은 고객만족도에서 항상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 ATM 서비스다. 자동차에 내리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고객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P)





2020 경제 트렌드, '라스트 핏'

김난도 교수팀의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등장해 알려진 '라스트마일'이란, 원래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 단어가 물류업계에서 '여러 배송 단계 중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단계'를 뜻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즉, 상품이 마지막 배송 상태 단계에까지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 충성 고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얻는 마지막 순간의 만족, 이것이 요즘 기업들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글 편집팀 참고 트렌드 2020

라스트핏 이코노미가 확산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제 소비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기만족'을 충족시키는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쿠팡 유료 회원 등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더라도 보다 손쉽게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구매하기까지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1인 가구, 부부 중심의 가정 등의 증가로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문화가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는 피하고, 비대면 형태를 선호한다는 점도 라스트핏 이코노미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스트 핏의 유형들

1) '배송' 라스트 핏 - 요즘 배송은 상품을 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됐다. 예를 들어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서비스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배송망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신선

식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던트리코' 세탁 업체는 세탁할 옷을 내놓으면 세탁 후 문 앞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거나 찾으러 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다.

'배송'과 관련하여 '구매'의 라스트 핏도 있다. 구매한 제품을 '언박싱' 영상과 같이 고객이 제품의 실물을 처음 보게 되는 순간, 소위 '영접'의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로 인해 최근 업계에서는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는 경험을 위해 제품의 박스 포장 디자인 전담 인력을 구성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한다.

2) '이동' 라스트 핏 - 키보드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최근 '슬세권'이라는 용어도 이동 라스트핏 현상의 하나다. 슬세권은 슬리퍼 역세권 같은 의미로 슬리퍼를 신고 누릴 수 있는 문화 편의 시설 주거 권역을 말한다. 이동의 라스트 핏은 근거리 경제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로봇 서비스 경제 서울시 성수동, 로봇 카페가 온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어떤 맛일까? 우리에게 더 가까워진 로봇 서비스. 커피 맛이 궁금하다면 방문해보자.

카페 봇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봇'에는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 있다. 장인이 내리는 커피가 아니라 로봇이 일정한 온도와 편차 없는 정량의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사람이 감각으로 하는 일을 로봇은 정량화된 수치와 오차 없는 드립 세팅 기술로 편차 없는 커피를 내려준다. 커피를 마셨다면 디저트는 '디저트봇(DessertBot)'이 담당한다.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디자인한 드로잉을 입력하면 케이크 위에 즉석에서 케이크 커스터마이징 디저트가 완성된다.
주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9길 8



슈퍼 말차

절고 힙한 카페가 있다. 스텐과 돌의 조화, 그린 포인트가 화룡점정으로 있는 슈퍼말차 성수다. 100% 최상등급, 국내 보성 유기농 말차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을 넣어 건강한 달콤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말차를 로봇이 내려준다는 것이다.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힙한 카페다.
주소: 서울 성동구 서울숲6길 19,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3길 36

내 차 관리를 위한 정보 차량 소모품 관리법

글 편집팀



필터 소모품 - 에어컨필터(캐빈 필터) & 에어필터(에어클리너) & 연료필터

캐빈 필터라고도 불리는 '에어컨필터'는 말 그대로 에어컨 / 히터를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준다. 냄새가 난다면 곰팡이 때문일 수 있으니 에어컨필터를 바로 확인해봐야 한다.

에어컨필터는 글로브박스 뒤쪽에 위치해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글로브박스 좌우 고정판을 제거하면 에어컨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 에어컨필터는 해파필터, 활성탄필터 등 종류가 많아서 필요에 따라 구매하면 된다.

'에어필터'는 에어컨필터는 아니다. 차량 내부가 아닌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제때 교체해주지 않으면, 공기의 불순물이 엔진으로 들어가 엔진 마모를 일으킨다.

'연료필터'는 디젤 연료의 불순물을 걸러워서 엔진 실린더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연료 내 불순물이 생기면 연료 분사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주기는 가솔린 차량의 경우 6만 km, 디젤 차량은 3만 km마다 교환해 주는 걸 추천한다.

엔진오일 & 오일필터 & 브레이크 오일

자동차 오일 중 가장 자주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다. 5,000km ~ 7,000km 사이에 교체해주자. 미션오일은 엔진오일 다음으로 열을 많이 받는 오일이다. 동력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역시 교체 주기를 잘 확인하자. 미션오일은 30,000 ~ 40,000km마다 교환한다. 오일필터는 엔진오일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엔진오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엔진 내부에서 먼지, 금속 가루 등을 걸러준다. 신체의 신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오일필터의 교체주기와 엔진오일의 교체주기가 비슷하므로 동시에 교환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오일은 30,000~40,000km마다 교환한다.

그 밖의 소모품들

'타이어'는 보통 주행거리 40,000 ~ 50,000km 사이에 교체해야 한다. 주행 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핸들이 떨린다면 휠 얼라인먼트를 점검해주자.

'배터리'는 자동차의 모든 전력을 담당한다. 배터리는 3년을 주기로 교체해줘야 한다. 실내등을 깜박 켜고 내리거나 블랙박스 등을 많이 사용하다보면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니 하차 후에는 간혹 전원을 끄는 것이 필요하다.

'와이퍼'는 10,000km 혹은 6개월~12개월 사이에 바꿔주는 걸 추천한다. 고무 상태가 헐었다면 우천 시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교체해주자. '부동액(냉각수)'도 빼놓을 수 없다. 여름에는 엔진의 역을 식히고 겨울에는 엔진이 어는 걸 방지한다. 방지하면 어느점과 끓는점이 바뀔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교환하자. 

자동차 폐차, 이렇게 하자!

정든 차를 보내야 하는 하는 순간이 있다. 어떻게 폐차가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 폐차'다.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등이 없다면 일반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저당 또는 압류가 걸려있지 않아야 한다. 폐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폐차장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폐차 신청을 한다. 다음으로 폐차장에 방문하거나 탁송, 견인 기사를 통해 차량을 입고시킨다. 때로는 중고차딜러, 신차영업사원 등이 대행처리해 줄 때도 있다.



차가 폐차장에 입고되면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접수를 받는다. 보통 24시간 내에 폐차증서가 발급되는데 오전에 입고되면 오후에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말소는 차주가 직접 관할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폐차장에서 행정 처리를 한 후 말소증을 보내준다. 차주는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내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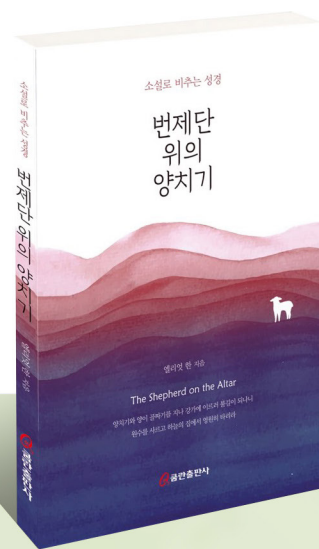
차주는 폐차장 행정 처리비, 폐차 과정 중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최종 폐차보상금을 받게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공동명의 공동명의자 2인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번제단 위의 양치기』 저자, 엘리엇 한

그 시간, 그들의 마음을 꺼내보는 작업

“재밌다, 흥미롭다, 섬세하다, 놀랍다, 흡입력 짱이다” 신간 『번제단 위의 양치기』의 마지막 몇 장이 남지 않은 시간, 머릿속에 맴도는 표현들. 성경을 소설로? 참 낯설었다. ‘괜찮을까’라는 약간의 경계심도 있었는데,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니 손에서 책을 놓지 못했다. 재밌다! 이 소설을 만난 후 성경을 마주할 때면 나도 모르게 그 당시 주인공이 되어 현장을 상상해 보는 변화가 시작됐다. 고마운 작가, 엘리엇 한을 서면으로 만나봤다. 글 편집팀



"이 땅에서 힘들게 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든 거야" — 본문 중

Q. 엘리엇 작가님, 첫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집필에 대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면서 또 신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던 와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썼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출판이 되었네요.

Q. 책에서 성경의 여러 사건이 종합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설로 구성할 계획을 갖게 되셨나요?

A.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개별 사건들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아 놓으면 ‘짤!’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을 비추는 한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미리 계획해서 그런 사건들을 넣자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제를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주인공들이 각자 알아서 성경 속의 사건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인이 믿음 없이 살고자 하니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아벨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쓰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을 쓴 J. R. R. 톨킨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지요? 모든 상황을 가정해놓고 주인공을 상상 속에서 출격시킵니다. 그러면 톨킨은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Q. 책을 완성하기 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나요? 작업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A. 4~5개월이 걸렸습니다. 책의 분량을 보면 생각보다 길게 걸린 셈이지요. 사람들은 작가의 삶을, 맛나는 커피 한 잔을 훌쩍거리며 혼자 여유 있게 글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자녀가 두 명 있고, 풀타임 회사원으로 일하는 40대 초짜 작가에게 그런 여유는 있을 수 없지요.

회사 점심 시간이 1시간이라서 10분 이내에 점심을 급히 먹고, 나머지 50분 동안 노트북을 들고 밖에 나가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쓸 수 있을까 했는데 하루하루 꾸준히 밀고 나가니 결국 완성이 되었네요. 공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도 초기에는 교사로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애들을 재운 다음, 덜덜거리는 고물 세탁기 위에서 타자기를 두들겼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Q. 글의 묘사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A.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이 지구의 첫 인간일 텐데,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 많이 생각해보고 상상해봤습니다. 글 속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Q.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A. 굶어 죽지는 않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인생만을 걱정하며 스스로 세운 계획대로 힘겨워하며 나아가다가, 결국 세상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

아니면 참된 목자를 만나서 삶의 죄를 씻고, 목자가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우주의 창조자를 예배하며 영원히 사는 인생.

Q.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A. 전자의 인생을 끝내고, 후자의 인생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G

남자를 위한 면도의 정석

남자라면 매일 하는 것 중 하나가 면도다. 남자에게 면도는 여자의 메이크업과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마다의 루틴과 방식으로 하는 면도. 내가 과연 면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면도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본다. 글 편집팀

면도기의 재미있는 역사

1904년 미국인 질레트가 안전 날 면도기를 개발했지만, 물과 비누 없이 간편하게 면도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쉬울 것 같았던 전기면도기 즉 건식 면도는 24년이나 지나서 세상에 등장한다.

1928년 퇴역 군인이었던 제이콥 쉬크가 전기면도기를 개발한 것이다. 쉬크는 미국 스페인 전쟁 참전 군인이었다. 전쟁에서 이질을 앓게 됐고 찬 기후의 알래스카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건식 면도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전역 이후 그는 연구 끝에 얇은 칼날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 모터와 각종 부품들을 합성수지 케이스 안에 넣을 수 있었다. 탄창 모양을 토대로 만든 탄창형 안전면도기를 처음 내놓았다. 점점 전기면도기 수요가 늘어났고 기술 발전으로, 1937년 레밍턴사의 면도망 도입, 39년 회전식 전기면도기 개발, 60년 충전 가능 배터리 내장형 면도기 등이 출시되며 대중화가 이뤄졌다.

전기면도기(건식) vs 날 면도기(습식)

당신의 면도기 선택은? 날 면도기는 수염의 술이 많거나 깔끔한 면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전기면도기는 면도가 서툴거나 간편하고 빠르게 면도를 끝내고 싶은 사람, 피부 자극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건식 면도기는 면도할 때 수염을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전기면도기는 일자 날과 원형 날,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면도 방식이 다르다. 일자 날은 습식면도와 반대로 털이 난 역방향으로 면도한다. 원형 날은 피부 위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면도를 해야 한다.

반면에 날 면도 즉 습식 면도

는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한다. 우선 셰이빙 폼이나 젤을 꼼꼼히 바르고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를 시작한다. 역방향으로 하다가는 피부에 상처를 내거나 베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상처가 났을 때는 찬물로 지혈해주자.

그렇다면 수염이 난 방향을 어떻게 확인할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면 수염이 난 방향이고, 까끌까끌한 느낌이 든다면 역방향이다.

셰이빙 제품은 수염 결 반대 방향으로 발라 결을 세워주고 수염이 난 방향으로 면도한다. 면도날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녹이 슬거나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어 면도날은 주기마다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청결을 위해 필요하다.

면도의 정석

면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세안이다. 따뜻한 물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깔끔하게 털을 제거할 수 있다. 데운 스팀 타월을 얼굴에 감싸 각질을 불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간혹 비누 거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찮더라도 반드시 셰이빙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비누는 면도날과 피부의 자극을 잘 막아주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셰이빙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 거품 타입은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추천한다. 거품 타입은 윤활력과 보습력을 갖추고 있어 피부 자극을 방지해준다. 젤 타입은 수염이 많고 역센 사람,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남자를 위한 면도기 추천

도루코 PACE6 면도기 핸들 - 올리브가 함유된 윤활 밴드로 면도 후에는 한층 향상된 피부 효과와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질레트 퓨전 프로실드 옐로우 - 프레시전 트레머가 면도날 뒷면에 위치해 있어 구레나룻, 코밑 등 닿기 힘든 곳까지 면도를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얇고 정교한 5중 면도날로 밀착은 극대화하면서 피부 자극은 최소로 줄였다.

필립스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 - 5방향 플렉스 헤드가 탑재되어 빈틈없는 저자극 면도가 가능하다. 물 세척이 가능하고 무선 사용도 가능하다. 필립스 9000 시리즈로 추천한다. 자동 세척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BRAUN 시리즈 - 면도가 힘든 곳의 수염을 잡아주는 중간 트리머가 있어 수염을 깔끔하게 밀착 면도한다.

집콕 생활, 보드게임 어때요?

보드게임은 재미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아이들은 배움보다 놀이로 생각한다. 기초적인 신체, 사회, 정서, 언어, 인지 등을 자극해줄 수 있다. 특히 함께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성(규칙 지키기, 자신의 감정 표현 등)을 기를 수도 있다. 즉 보드게임은 사고력을 자극하고 관계성 학습에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야외활동, 집에서 가족들과 하면 좋은 보드게임을 소개한다. 글 편집팀



미니 에어하키 게임

하얀 경기장 판에 미세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 건전지를 넣으면 작동을 시작하고 바람 소리가 난다. 미세 구멍에서 바람이 나와 동그란 펙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양쪽 선수가 각자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파란 눈금이 있다. 가격은 1만 원대 중반이다.

길이 51cm 폭 31cm 높이 10cm.

폴드잇(손수기접기 게임)

손수기접기 게임이다. 20cm 정도 되는 손수건은 양면으로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다. 공간지각능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이다. 카드를 뒤집어 주문서를 확인하고 동시에 손수건을 접어서 카드에 있는 요리가 나오도록 접는다. 간단하게 하려면 주문서대로만 요리하기로 물을 정하면 아이들과도 쉽게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만 원대이고 크기는 정사각으로 20cm 정도다.

펍킨 얼음깨기

요즘 장안에서 화제가 되는 게임이다. 크기도 22cm 정도고 가격도 5천 원 내외로 착해서 놀이하기에 무리가 없다. 펍킨이 떨어지지 않게 망치로 플라스틱 얼음을 잘 깨는 것이 관건이다.

루미큐브

보드게임의 고전, 루미큐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게임이다. 가지고 있는 숫자 타일을 요리조리 조합해 모두 없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사고력, 계산력, 집중력까지 요구되는 두뇌 자극 오락거리다.

할리갈리

누구나 캐주얼하게 머리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풀덱 게임! 같은 과일 그림이 5개가 됐을 때 먼저 종을 치는 사람이 깔린 카드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 상대방의 카드를 모두 뺏는 사람이 승리한다. 룰은 단순하지만, 순발력을 요구한다.

밸런스 게임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한 게임이다. 동그란 단추 크기의 토폴을 주사위의 규칙대로 쌓다가 쓰러지면 떨어진 토폴은 게임자가 갖는다. 가지고 있던 토폴이 없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한글과 영어를 익숙하게, 교육 보드게임, 징고는 빙고게임과 낱말 맞추기 게임을 혼합시켜 놓은 게임이다. 사용 가능 연령은 4세 이상으로 2~6명이 함께 하는 게임이다. 영어 한글이 적힌 타일을 빨간 분배기에 잘 섞어 놓고 각자 징고판을 하나씩 가져간다.

빨간 분배기를 앞뒤로 밀 듯 움직이면 타일 두 개가 나오는데 자신의 징고판 위 그림과 같은 타일이 나오면 공, 볼이라고 먼저 외친 사람이 타일을 가져고 징고판 위에 올릴 수 있다. 빙고의 원리와 같다. 이런 식으로 징고판을 타일로 빨리 채워 넣는 사람이 이긴다.

셈셈 수놀이

4세 이상 연령대가 가능한 수학 보드게임이다. 최대 4명까지 즐길 수 있다. 숫자카드를 이용해서 순대로 나열하기, 불러주는 숫자에 맞는 카드 찾아오기 등부터 덧셈, 뺄셈 놀이까지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 간단한 산수 정도를 게임을 하면서 익힐 수 있다.

클루 CULE

아이들이 청소년이라면 추리게임의 고전 클루를 해보자. 저택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 사건, 범인을 밝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단지 범인만 밝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누가 어떤 도구로 어디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두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추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클루를 추천한다. G

명탐정이 되고 싶으세요?

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셜록홈즈'가 아닐까? 코넬도일 덕택에 셜록홈즈는 탐정의 대명사가 됐다. 미드 '셜록' 역시 셜록홈즈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대여되고 팔리는 소설도 추리 소설이다. 어릴 적 한 번쯤 탐정이 되어보고 싶은 꿈을 꾸 아이들도 많으리라. 그런데 과연 현실에도 탐정이 있을까? 그렇다면 영화 속 탐정과 현실의 탐정은 어떻게 다를까? 탐정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편집팀

역사상 최초의 사립 탐정

19세기에 비도크라는 전설적 흉악범이 있었다. 경찰은 그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영입해 당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한다. 비도크는 특별수사대장으로 승진해 2만 명이 넘는 범죄자를 잡아넣었다고 한다. 그는 은퇴한 뒤 세계 최초의 사설탐정 사무소를 열었다. 그 이후 탐정이란 존재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서 코넬 도일이다.

셜록홈즈의 공헌

셜록홈즈는 친구 와트슨의 상식과 달리 미제의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간다. 하지만 결국 홈즈의 추리 기법에 의해 범인이 드러난다. 독자들은 그가 사건을 풀고 와트슨에게 설명해주는 걸 들으며 무릎을 친다. 셜록홈즈는 지문, 발자국, 미세한 현장 증거물을 토대로 흠어진 범인의 증거 파편들을 모아 결국 사건을 해결한다.

셜록홈즈는 이후 대중문화와 현대 과학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준다. 2010년 처음 방송된 BBC '셜록', 1997년부터 극장판이 나오기 시작해 현재 스무 편이 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낸 '명탐정 코난' 등이 대표적인 탐정물이다. 국내에도 탐정을 소재로 한 '탐정:더비기닝'이 속편까지 제작돼 인기를 끌었다.

현대판 셜록홈즈, 과학 수사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미드 'CSI 수사대'는 현대판 탐정물이다. 과학을 바탕으로 한 첨단 기법으로 범인을 추리해간다. 이 역시 셜록홈즈가 썼던 추리 방식을 현대적 도구의 힘을 빌어 발전시킨 것이다.

1) 지문- 셜록홈즈 '4개의 서명'에서 지문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다. 이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야 런던경찰청은 범죄 수사에 지문을 증거로 수집한다. 최근에는 지문과 함

께 남겨지는 세균 흔적이 과학수사에 새로운 증거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세균은 어떤 주위 환경에도 2주일 넘게 생존하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발자국- 셜록홈즈는 소설 속에서 범인의 발자국을 유심히 관찰하고 단서를 얻어낸다. 실제로 범죄 수사에 '죽은 적'이라 해서 사람의 발에 의해 만들어진 고유한 흔적을 분석해 범인 추적에 활용하고 있단다. 신발의 크기와 마모 상태에 따라서 범인의 몸무게, 걸음걸이, 직업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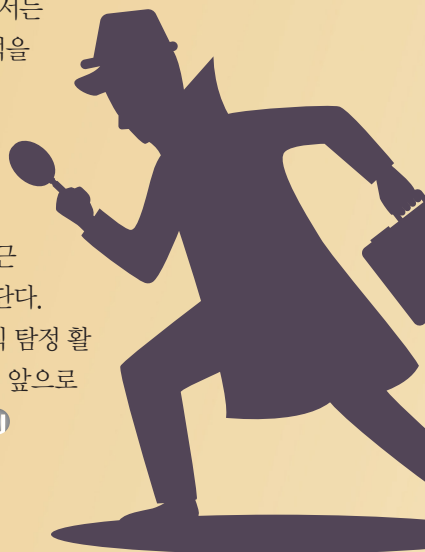
3) 암호- 추리소설이나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증거는 암호다. 그래서 셜록홈즈는 자신을 암호분석가라고 칭하기도 했다. 현대에는 이를 더 발전시킨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 복구, 암호화 파일 해독 등을 하고 있다.

4) 타이핑과 필적 - 셜록홈즈가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필적이다. 현대 수사에서는 필적이 대뇌가 지배하는 생리작용의 하나로 뇌의 흔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필적을 파악하면 범인의 캐릭터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5) 모든 흔적은 증거를 남긴다 - 탐정들은 범인이 사건 현장에 남긴 아주 사소한 흔적들을 통해서도 단서를 파악한다. 현대 수사에서는 이런 흔적들을 토대로 DNA 분석을 거쳐 범인을 찾아낸다.

탐정이 되고 싶다면?

전 세계에는 사설탐정들이 민간 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접근하기 민감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탐정 활동이 인가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앞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시력교정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력교정 수술의 모든 것

눈이 나쁘면 만사가 불편하다. 수영장을 가서도, 목욕탕을 가서도, 맘에 드는 선글라스가 있어도 시력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 다행히 시력교정 수술의 발전으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안경을 벗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안경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두꺼운 렌즈의 안경 대신 수술 후에 안경을 선글라스처럼 패션 스타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팀

시력교정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

스마일 라식은 17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광학 기업 자이스가 개발한 수술 방법이다. 기존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을 살려 개발한 3세대 레이저 시력교정 수술이다. 근시와 난시를 치료하는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한다.

스마일 라식은 수술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수술 다음 날 출근해 업무를 보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다. 수술 시간도 20분 내외로 짧고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미미하다고 한다.

라식 수술

가장 많이 하는 시력교정 수술로 통증이 적고 시력 회복이 빠르다. 각막절편을 레이저로 교정한 뒤에 다시 덮는 방식으로 각막이 두꺼운 환자들이 선택하는 수술법이다. 하지만 각막을 절제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

라섹 수술

라섹은 각막 실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교정하는 라식과 비슷하지만, 각막 상피만 제거한다는 점에서 라식과 차이가 있다. 각막 표면에서만 수술하기 때문에 각막의 두께가 얇거나 눈이 작으신 분들도 시력교정이 가능하다. 다만, 수술 후 각막 상피가 재생될 때까지 통증이 수반될 수 있다. 수술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베드로 라식 / 라섹 엑스트라 수술

라식 / 라섹 수술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막 두께다. 각막 두께가 얇거나, 각막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아베드로 라식 / 라섹 엑스트라 수술을 권한다.

안내렌즈삽입술

작은 렌즈를 눈 안쪽에 삽입해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삽입하는 위치에 따라 렌즈 및 시술의 종류가 달라지고 시간 경과에 따라 눈의 도수가 달라지면 추후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싼 게 흠이지만 시력교정 효과가 뛰어나고 각막 손상을 주지 않아 건조증으로부터 자유롭다.

수술 후 렌즈 착용 상황

고도근시의 경우 시력교정 수술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재수술보다 렌즈 착용을 권한다. 하지만 이때 렌즈는 일반적인 렌즈가 아니라 특수 렌즈다. 드림렌즈, 하드렌즈 두 종류가 있다.

드림렌즈는 자기 전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며 아침에 뺀다.

자는 동안 시력교정을 해줘 하루 정도 시력이 교정된다.

하드렌즈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착용하는 렌즈로 수술 후 편평해진 각막 모양에 맞게 제작된다.

수술을 했던 사람이 렌즈를 착용하려면 각막의 형태와 시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 진행 후 처방받아 써야 한다.

수술 후 눈 관리

수술 후 각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눈 관리가 소홀하면 회복 기간이 늦어지고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다. 시력 저하도 뒤따른다. 따라서 인공눈물 점안, 자외선 차단 등은 기본이고 눈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식품 1순위는 루테인이다. 루테인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고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과 수정체에서 항산화 작용 및 광보호 작용을 한다.

수술 직후에는 건조증 인지 기능과 신경 기능이 약해지므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좋다. 눈 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어 건조함을 개선하고 항염증 작용을 해 각막 세포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은 3일 이후부터, 눈 메이크업은 1주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 세안 시 조심해야 한다. 폼이나 염색은 1주 후부터 한다. 음주는 1주 이후 가능하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음주는 피하는 게 좋다. (G)



도림교회 디아코니아센터

도림교회 디아코니아센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봉사 및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킴, 복음을 전파하여 지역주민과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림교회 디아코니아센터는 어르신복지사업으로 늘푸른노인학교, 경로식당, 아가페이미용봉사단이 있으며 아동·청소년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지역학교장학사업 등이 있다. 또한 저소득지원사업으로 사랑의집수리봉사단, 작은자결연사업, 사랑의저금통이 있으며 평생교육사업으로 셀라음악학교, 비전한글학교, 입암도서관이 있다. 그밖에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웃사랑나눔바자회, 행복을 파는 가게, 신용협동조합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모랫말꿈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확대 예방을 위해 일시적인 휴장을 하였지만 프로그램 재개를 앞두고 디아코니아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 활동을 소개한다.

늘푸른노인학교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글로리아성전에서 모임을 갖는다. 합창, 탁구, 장구, 난타, 게이트볼, 밴드제조, 실버댄스, 가요교실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에 창단된 **아가페이미용봉사단**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역 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이미용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가페이미용봉사단은 매주 교회 내 미용실에서의 정기적인 봉사뿐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방문 봉사도 하고 있다.



1989년 4월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전한글학교**는 2011년에 초등학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성인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한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초등학교학력이 인정되고 중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올해는 초등 1,2,3단계와 중학교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학습뿐만 아니라 소풍, 견학, 특별활동을 통하여 만학의 기쁨을 더하고 있다.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집수리를 담당하는 **사랑의집수리봉사단**은 지난 해까지 도배, 장판, 전기배선, 도색, 싱크대교체 등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여 지역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생



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일체의 비용없이 무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다. 올해도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곧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모랫말꿈터는 영등포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다. 모랫말꿈터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재가 장애인에게 저하된 심신의 기능을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섬기고 있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재활활동,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체력증진활동, 캠프, 특별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림방과후학교는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1~6학년 40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과학습, 특기교육, 인성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개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영어, 생활체육, 독서, 과학교실, 한자급수 시험, 스키캠프, 여름캠프,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림어린이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교육과 심신의 보호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민주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기관이다. 도림어린이집에서는 원내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영유아들의 정서 및 오감발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셀라음악학교**는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드럼, 기타, 소금(국악기), 재즈피아노, 성악(어린이, 성인), 양상발 등의 10개 강좌 3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7,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입암도서관**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될 예정이다.



의류, 그릇, 가전제품, 신발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증받은 새 물품으로 가득한 행복을 파는 가게도 단장을 마치고 지역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은 도림교회 담임목사이신 정명철목사님의 지역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원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물품후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역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나가는 디아코니아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제32기 비전한글학교 학생 모집

(초등학력 인정기관)

비전한글학교는 201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일정기간을 이수하면 초등학교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이후 중학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비전한글학교는 초등학교 1, 2, 3단계와 중학과정에서 공부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정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구분	수업일	과정 / 교재	인정 시간
초등1단계	화, 목 오전 9시30분~오후1시	초등1.2학년 수준 소망의나무 1~4권	40주 총 240시간
초등2단계	화, 수, 목 오전 9시30분~오후1시	초등3.4학년 수준 배움의나무 5~8권	40주 총 240시간
초등3단계	화, 수, 목 오전 9시30분~오후1시	초등5.6학년 수준 지혜의나무 9~12권	40주 총 240시간
중학과정	화, 수, 목 오전 9시30분~오후1시	중등1, 2, 3과정 중학국어,수학,사회,과학 등	40주 총 400시간



문의 : 2181-6111~3

도림해법학원

교육상담
T. 02-848-2313

(주) 친환경

환경, 위생, 환경전문기업
방역, 소독, 물탱크정수, 위생·건물·시설관리
대표이사 장 일
고객센터 T. 1599-5411

(주)동명바이브로

대표 이 득 원
010-6570-0023
T. 02-2633-0341

(주)신흥기공

대표 송 흥 섭
T. 041-931-8970

신협

도림교회 신용협동조합
T. 02-2181-6079
02-848-0987

성 은 기 계

T-DIE 및 Feed / Block
압출 평판 필름 및 시트의 모든 다이스
대표 이 현 승
T. 031-986-4812

(주)주안솔루션

대표 조 광 민
T. 02-6251-8001

성광정밀

UHD 곡면 TV·자동차금형
고광택 금형전문
대표 서 태 석
T. 010-5355-2310

참중은리빙웰치과

원장 변 숙
T. 02-868-4567

다올항외과

원장 이 승 하
T. 02-2672-8275

변호사 손인준 법률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상동 법조타운) 506호
T. 032-322-7878

주식회사 광일

대표 이 대 무
T. 02-796-0321~3

이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 정 식
T. 02-857-8021

(주)씨엔에스마케팅

유통·제조·제3자물류센터
대표 성 시 현
T. 031-433-1177

SGI 서울보증

마포지점 대표 이 재 상
010-2252-3927
T. 02-383-6000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신동성·한선숙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김용철·김옥련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오희옥·홍명자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소학섭·차상희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이 상·전승옥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황인준·신정아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이남준·이향숙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

VISION STORY를
후원합니다
익 명